

여성가구의 노동시장 참여

윤 성 호(전북대학교)

가부장적 가족주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성별분업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주변적 지위, 모성 및 아내로서의 책임, 수발노동 등으로 인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자체를 어렵게 한다. 그리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더라도 비정규직 위주의 불안정한 진입과 잦은 이탈과 재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낮은 노동시장 참여와 비정규직 위주의 참여지위가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어렵게 하고 빈곤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성가구의 취업여부와 취업지위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여성가구의 취업실태와 취업지위를 알아보고, 여성가구주 개인의 인적자본특성, 성역할을 살펴볼 수 있는 가족특성 그리고 소득특성변수가 취업 및 취업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가구의 노동시장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노동패널(KLIPS)의 1차년도와 4차년도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여 64세 이하의 여성가구주 286사례를 대상으로 취업여부와 취업지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인적자본변수(교육수준, 연령, 건강상태), 성역할 특성변수(취학 전 아동 수, 가구원 수), 소득특성변수(이전소득, 공공부조 수급)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추론통계방법으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해 여성가구의 취업 및 취업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여성가구의 취업률이 58.4%로 낮게 나타났으며, 취업한 여성가구의 취업지위도 비정규직이 51.9%로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가구의 취업은 연령, 건강상태 그리고 이전소득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과 이전소득은 취업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건강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수준, 취학전 아동, 가구원 수, 공공부조 수급 등의 변수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가구의 취업지위는 연령, 건강상태 그리고 가구원 수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과 가구원 수는 정규직 취업에 정적(+) 영향을 연령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수준, 취학전 아동, 이전소득 그리고 공공부조는 취업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여성가구주, 노동시장 참여, 취업여부, 취업지위